



KBS이산가족찾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83년 6월 30일부터 138일간 생방송, 전쟁 참상 알리고 인류애 고취한 기록



가족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방송을 접어야 하기에 가슴 아파했던 마지막 방송(왼쪽부터 유철중 MC, 이지연 아나운서, 황인우 아나운서, 아르바이트생들)

세계 최초, 최대 규모의 KBS 이산가족찾기 방송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되었다. 유네스코는 10월 9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12차 국제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부터 11월 14일 새벽 4시까지 138일간 453시간 45분간 펼쳐진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이원균 PD, 안국정 CP)와 전국 305개 문중

에서 자발적으로 제작한 718종 6만 4226장의 '유교 책판'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산가족찾기의 경우,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인권과 보편적 인류애를 고취한 기록으로써 전쟁 전후세대 단절 극복과 국제 냉전질서의 완화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았다. 관련 기록물은 비디오테이프 460여 개와 제작진의 업무 수첩, 이산가족이 작성한 신청서, 방송진행표, 기념음반, 사진 등 2만 522건으로, 방송 기록물로는 2011년 등재된 독일의 <베를린 장벽의 축조와 붕괴> 이후 두 번째이다.

10만 952건의 신청자 사연 중 5만 3536건을 소개했으며, 전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대거 투입되어 1만 189건의 상봉을 이루어낸 방송 프로그램 동영상은 KBS 이산가족찾기 사이트(<http://family.kbsarchive.com>)에서 볼 수 있다.

[2, 3면 이산가족찾기 방담]

황우겸 고문 청룡기고교야구 70주년 기념 시구

1946년 제1회 청룡기야구대회에 인천 동산중 선수로 참가

아나운서클럽을 태동시킨 황우겸(86세) 고문이 역사적인 시구를 날렸다.

황 고문은 인천 동산중 3학년 때인 1946년부터 4년간 3루수로 청룡기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인연으로, 11월 9일 오후 3시 서울 구로구 고척동 스카이돔에서 열린 제70회 대회 개막식에서 시구자로 마운드에 섰다. 청룡기 1회 출전자 24개 팀 528명의 선수 중 황우겸(동산중), 황기대(경남중), 이용일(경동중) 등 3인의 생존자는 모교 유니폼을 입고 시구·시타·시포를 선보여 참가 선수와 관중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고, 황 고문의 부



노 선수의 감회 깊은 시구 - 70년 전 경기를 떠올리며

인 권경애 여사를 비롯해 임국희 회장 등 아나운서클럽 회원과 동산고 야구부 후배들은 현장에서 꽃다발을 전했다.

황금사자기 타격상 수상자이기도 한 황우겸 고문은 성균관대를 거쳐 1951년 KBS에 입사해 야구 선수 출신답게 야구 중계에서 독보적인 기량을 발휘했고, <스타 탄생>의 작가 겸 MC로 활약했다. 그리고 KBS TV 초대 아나운서실장을 맡았다가 1963년 퇴사 후 대한항공과 동양화재해상보험 상무, 우신무역 대표, 한국JC특우회 제2대 회장, (사)한국아나운서클럽 제2대 회장을 역임했다.

전영우 고문 35번째 <바른 예절 좋은 화법> 발간

국제화 시대 예의범절과 화법을 다룬 교양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대, 전영우 고문이 <바른 예절 좋은 화법-착한 인성의 품격(민지사)>을 펴냈다. 유교 경전 '예기'와 엘리너 루스벨트의 '에티켓 상식'을 바탕으로 국제화 시대에 지켜야 할 예의범절과 화법을 다룬 교양서이다.

1962년 번역판 <화술의 지식>을 시작으로 고교와 대학 화법 교과서를 비롯해 <표준한국어발음사전> <스피치와 프레젠테이션>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 <플라톤 대화편> <키케로의 연설가에 대하여> 등이 35번째 저작물이다.

전영우 고문은 서울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1954년 KBS에 입사한 후 동아방송(DBS) 부국장 겸 뉴스 해설위원을 지내고 KBS 아나운서실장 재직 시 KBS한국어연구회를 발족시켰다. 그 후 학계로 진출해 수원대 인문대 학장으로서 한국화법학회를 창립해 제1, 2대 회장을 역임한 화법의 대가로 아나운서클럽 제4대 회장을 지냈으며, 동량유치진연극상, 서울신문화상, 외솔상, 천원태원학술상 등을 수상했다.

송 / 년 / 사

여럿이 함께 손잡고 걸어갑시다



임국희(전 MBC) 회장

'아차!' 하는 사이에 한 해가 가네요, 아무 것 한 일도 없이. 그러나 아나운서클럽은 '선배존경 후배사랑'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금년의 선배들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황우겸 선배는 새로 지은 고척동 돔 구장에서 70년 된 스태프들과 함께 70년 된 야구공을 날렸습니다. 고교 야구 선수들과 90세가 다 되신 분들의 드높은 환호가 보는 이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규향, 김승한, 이장우 『3인 아나운서 이야기』는 이세진·이계진 공동 저자와 함께 다섯 아나운서가 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따뜻하고 믿음직한지 보여주었습니다. 전영우 선배님의 35번째 책 출간도 굉장하고, 개성을 다녀오신 박중세 선배님은 만월대 유물전시회 관람단의 최고령자셨다니요! 그리고 임택근, 강영숙, 최계환, 전웅덕, 최만린 선배님의 낭만을 거쳐,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 사회를 본 김동건 전임 회장님, 요양소에서도 인기 만점인 사회봉사 모습은 존경의 대상이시지요.

기술과학이 눈 돌릴 새 없이 가파르게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 혹자는 이 시대가 '물질만능과 승자독식을 강요하는 시대, 경제성장만이 최고의 선으로 인정되는 시대, 상업주의에 물든 방송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시대'라고 한탄합니다. 이런 시대야말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아울러 '아나운서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이 써늘하고 황량한 시대에 때와 장소를 잘 가려 기운차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후배들의 모습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아나운서들이야말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나운서의 삶은 계속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12월은 감사와 위로와 축복의 달입니다. 우리가 모두 손잡고 힘을 합치면 얼마나 강한 모임이 되겠습니까?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다같이, 한마음으로, 씩씩하게, 아름다운 새해를 걸어갑시다.

아나운서연합회 한국아나운서대상 시상식

아나운서클럽 회원 50여 명 대거 참석 동료애 나눠

대상 SBS 최영아 앵커상 KBS 김은성, KBS부산 김평래 라디오진행상 대전 febc 이경, MBC 이재은 TV진행상(교양) OBS 유영선, SBS 김지연 TV진행상(예능) KBS 조우종, SBS 장예원 스포츠캐스터상 KBS 이재후 장기범상 tbs아나운서팀, MBC 김상호 특별상 부활의 김태원 아나운서클럽상 CBS 정민아, KBS 도경완 공로상 KBS 창원 노병무

아나운서대상 시상식에 클럽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동료애를 나누었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회장 KBS 윤지영)가 주최하는 2015한국아나운서대상 시상식이 12월 4일 오후 6시부터 새누리당 정갑윤 부의장, 문화체육관광부 원용기 문화예술정책실장 등 외빈과 50여 명의 아나운서클럽 회원, KBS, MBC, SBS, CBS, OBS, tbs, febc, PBC 등 8개 회원사 150여 명의 아나운서들이 함께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 볼룸에서 열렸다.

문화체육부장관상인 대상 수상자의 최영아(SBS) 아나운서를 비롯해 앵커상 김은성(KBS)과 김평래(KBS부산), 라디오진행상 이경(대전 febc)과 이재은(MBC), TV진행상(교양) 유영선(OBS)과 김지연(SBS), TV진행상(예능) 조우종(KBS)과 장예원(SBS), 스포츠캐스터상 이재후(KBS), 장기범상 tbs아나운서팀과 김상호(MBC), 특별상 부활의 김태원, 아나운서클럽상 정민아(CBS)와 도경완(KBS), 공로상의 노병무(KBS 창원) 아나운서가 조각가 최만린(전 KBS) 고문의 예술 작품인 트로피를 받았다.

1부 KBS 조우종, MBC 김소영, 2부 KBS 윤인구, SBS 장예원 아나운서가 진행한 시상식에서 연합회 윤지영 회장은 "방송



2015한국아나운서대상 영예의 수상자들

안팎으로 언어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인사했고, 아나운서클럽 임국희 회장은 "우리 후배들 잘하고 있고 미래가 기대된다."라고 축하한 후 격려금을 전달했다.

일본 여행 일정을 미루고 참석한 황우겸 고문은 '인기에 도취하지 말고 품성·지성의 아나운서란 점과 상경하에上卿下愛의 정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고, 김승한(전 KBS) 회원은 '방송의 상징, 아름다운 전통에 빛나는 미래 방송의 주인공 아나운서 만세'를 외쳤다. 또 지역 근무를 마치고 온 KBS 41기 김선근, 강서은, MBC <복면가왕> 출연자 김소영, KBS 오승원 아나운서가 가수 못지않은 노래 솜씨를 과시했고, 16명의 아나운서합창단이 훈훈함을 선사했다.

[7면에 계속]

2016년 정기총회 3월 2일(수) 오후 6시 30분 열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산가족찾기 방담

‘그 때를 기억하십니까? 눈물바다가 된 가슴벅찬 그 현장을... 거기에 우리가 있었죠’

1천만 이산가족, 10만 신청자 중 5만 건 사연 소개, 1만 가족 상봉 - 138일간의 특별생방송 대장정



이산가족찾기 방송은 KBS 1TV <스튜디오 830(오전 8시 30분~9시 30분)> 화, 금요일 방송을 맡았던 이원군 PD가 6월 21일(화) '지금도 이런 아픔이'란 제목으로 이산가족의 사연을 다룬 데서 비롯되었다. 방송이 성과 없이 끝나자 밤 시간대 더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며 상봉을 이루어내자고 이원군 사장을 설득해 6월 30일(목) 밤 10시 넘어 2시간짜리 2회 특별기획 '지금도 이런 아픔이' (2) 생방송 <離散家族를 찾습니다>를 편성한다. 전체 진행에 <스튜디오 830> MC인 유철중·이지연, 600여 명의 사연 소개에 손석기·황인우, 서울시경 전자계산소 중계차 박용호, 10대의 전화번호 안내 정미홍, 대전 강희수, 춘천 김인주, 대구 이동건 아나운서가 참여한 첫 방송은 자정을 넘기고 '흩어진 가족을 찾자 하는 열기가 낮 2시처럼 뜨겁다'는 표현처럼 새벽 2시 43분까지 계속되었다. 이에 7월 1일에는 밤 10시 15분부터 전화선을 늘리고 본관 중앙홀을 임시 스튜디오로 만들어 원종배, 유애리 아나운서를 투입해 이원 중계를 시작, 다음 날 아침

7시 40분까지 2,000여 명의 사연을 소개했다. 그래도 이산가족들이 떠나지 않자 7월 2일 오전 8시 40분부터 김동건, 신은경 아나운서 공동 MC 체제로 정비해 5일간 철야 방송을 실시, 서울 본사와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제주, 춘천, 강릉 등 9개 지역 아나운서들은 '혹시나 하는 실낱같은 기대가 점점 열망으로 바뀌어가는' 이산가족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상봉자를 인터뷰, 78%의 시청률을 기록한 가운데 500여 명의 상봉을 이루어냈다. 전국 중계소에서 수고한 전기통신공사 직원들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자들은 물론 하루벌이 청년이 우유 100개를 기증하는 등 전국민의 열화 같은 성원과 관심 속에 지속되던 이산가족찾기 방송은 그 해 10월 9일 일어난 아웅산 테러를 계기로 11월 14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12월 4일, 방송 참여자 중 김동건, 신은경, 손석기, 황인우, 김상근 회원이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중식당에서 모여 그 때를 떠올리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글 / 황인우(전 KBS) 편집장

Q 이산가족찾기 방송 후 이렇게 만나는 건 처음이지요? 등재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했나요?

김동건: 전 등재가 확정된 그 날, 특집방송에 출연했어요. '중요한 일에 우리 아나운서들이 참여했구나!' 보람을 느꼈습니다.

신은경: 역사적인 방송에 참여한 것, 영광이지요. 그렇게 오랜 시간 못 만난 게 마음 아프지만, '그것도 소중한 기록이니까 그대로 보존되어야겠지.' 생각했어요.

김상근: 전 그 후 PD로 전직했기에 '30여 년 전에 내가 거기 참여했지.' 싶어 만감이 교차했어요.

손석기: 이렇게 중요한 방송이었구나, 세계기록유산으로 인정받다니! 뭐, 깜짝 놀랐지요.

황인우: 직종 막론하고, 직원이건 아니건 간에 당시 함께 일한 사람들이 떠오르더군요. 그리고 기록의 중요성입니다. 방송하느라 바빠 기록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Q 당시 상황을 살펴볼까요?

황인우: 제5공화국이 들어선 80년대 초반 KBS에선 매주 특별생방송이 이어지며 역량을 키워가고 있었지요.

김동건: 해방된 지 40년 정도 됐을 때죠. 1983년은 휴전협정 30주년이라 6.25 관련 특집방송이 많았지요.

황인우: 6월 26일(일)에도 저와 송지현 아나운서가 임진강부터 격전지인 낙동강까지 헬기를 타고 이동해 <전우여 다부동에서 만나다!> 생방송을 했습니다. 이날 생사도 모르던 전우들의 해후는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지요. 그러니 천만 이산가족의 경우는 오죽하겠어요!

신은경: 집에서 첫날 방송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지요. 그러다 시간은 흘러가고 '저 방송 어떻게 끝내지? 가서 바통터치 하고 도와줘야 하지 않나?' 걱정했어요.

김상근: 네 맞아요. 이산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니 방송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죠.

손석기: 처음엔 저희 둘이 사흘 내리 사연 소개를 하다가 나중엔 강성희, 김상준 선배를 비롯해 지면에 신기 어려울 정도로 아나운서실 동료 대부분이 참여했어요. 참 반응 대단했죠!

황인우: 스튜디오에서 만나 얼싸안은 가족이 실신하는 등 MC들은 돌발 사태에 대비해야 했고요.

김동건: 제가 참여한 첫날 7월 2일이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머리를 높이세요. 의무실에서 사람 오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감격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라며 수습했지요. 어떤 상봉자는 청량리와 면목동, 근거리에서 살면서도 그 동안 못 만났던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방송에서 찾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벽보를 만들어 방송사 벽에, 땅바닥에 붙이고, 외국 특파원들이 취재하러 와서 참 놀라워했지요.

손석기: 방송 초기 한 상봉자가 KBS 건물을 두 번 돌며 벽보를 확인하는데 6시간 반이 걸리더라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붙인 벽보를 찾을 길 없어 낙담했다가 방송을 본 동생이 연락해 상봉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어요!

김동건: 이산가족찾기 방송의 의미에 관한 특집방송을 진행할 때 독일대사관에서 나온 분에게 대본대로 "같은 분단국가인 독일은 어떠했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왜 이제 찾느냐? 우리 정부 수립 후 바로 찾아주었다. 정부가 할 일이 그런 거 아니냐?"라고 되물더군요. 생방송인데 참 할 말이 없고 무안했어요.

신은경: 하지만 우리에게 1983년 그 때가 적절한 시기였던 거죠. 짧은 시간이지만 그걸 보고 연락이 되다니 미디어의 힘, 방송의 위력을 실감한 순간이었어요.

김상근: 이산가족찾기 방송이 한창일 때 김상협 국무총리가 격려차 스튜디오를 방문해 "우리가 잘 살게 돼 그만큼 TV가 보급되니 이런 게 가능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신은경: 더욱이 1980년 12월에 컬러TV가 시작됐지요?

손석기: 그 때 부분적으로 실시했어요.

황인우: 더 지났으면 성형수술 등도 발달해 다 바뀌어 오히려 찾기가 더 어려웠을 테니 그 때가 딱 맞는 시기였던 거죠.

스스로 벽보 만들어 방송사 벽과 땅바닥에 붙여

방송 위력도 위력이지만 TV보급률도 성공의 한 축

생방송 대장정, 전국 KBS 아나운서 대부분 참여

우리 시대에 그런 방송 했다는 건 큰 보람

통일 후 이산가족찾기 때 우리 경험이 밑거름 될 것

Q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남지요?

손석기: 이산가족들이 3, 40년이 지나니 얼굴을 영 알아볼 수 없다고 했는데, 더 길게 소개했으면 상봉율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아쉬움은 있습니다.

황인우: 밤새 기다린 이산가족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몇 초밖에 소개하지 못하니 참 죄송했어요. 첫 방송부터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분들의 사연을 전해주기 위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데 점 양해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을 정도지요.

손석기: 그런데 소개해드렸는데도 또 들어와 서계시는 분들도 있었지요. 사연을 기억하는 저희가 안 된다고 해도 막무가내였지요.

황인우: 사연은 빼곡한데, 6.25 때 헤어진 경우가 아니면 짧게 소개해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보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휴대하는가 오해하시기도 하고 처음엔 카메라맨과 사인이 맞지 않아 다른 사연을 잡는 등 우왕좌왕할 때도 있었지요. 당사자 가족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리고 진행하느라 바빠서, 내 방송은 물론 남의 방송까지 모니터링을 하며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게 아쉬워요. 같은 시간대에 배정이 되지 않으면 누가 참여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요.

김상근: 지역은 하루에 한 번 연결될 정도니 아쉬움은 더했어. 제가 있는 강원도 춘천, 삼척 같은 대선 당시 교통이 안 좋아서 오가는 데 1박2일 걸리거든요. 그러니 집에 안 가고 계속 방송국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애절한 사연은 많은데 서울에선 자꾸 자르려 하고, 그러면 시간을 확보하느라 미리 10사람만 더 소개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머리를 쓰죠. 그래서 예정대로 다 해내면 박수가 쏟아졌지요. 만나서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말이죠.

Q 공영방송 KBS 아나운서의 역할과 기능이 대단했지요!

손석기: 연출자가 제가 야구캐스터니 짧고 정확하게 소개하리라 싶어 캐스팅했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 간결하고 정확하고 정중하게 진행하며 정통 아나운서의 모습을 보여줬지요.

김상근: 다른 직종이 해냈다면 온 국민이 공감했을 텐데, 이산가족의 아픔을 공감하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방송을 하겠다는 아나운서들의 열정이 방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않았나 싶어요.

김동건: MC로서 방송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아나운서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저렇게 할까' 자부심을 느끼곤 했습니다. 사연을 써온 거 보면 이름부터 특장까지 이상한 말이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황인우 아나운서를 비롯한 우리 아나운서들은 다 고쳐가며 읽었어요. 조선일보 칼럼에서도 그 내용을 다루었지요.

황인우: 제가 스크랩해놓았기에 소설가인 선우휘 논설위원의 글을 기억합니다. '사연을 바꾸어 전하는 아나운서의 방송을 알아차린 순간 감동은 전율로 바뀌었고 모처럼 한국인으로서 살아있는 보람을 느꼈다'는 내용이었지요. 그 방송을 해낸 원동력은 바로 선배들로부터 익힌 방송언어의 중요성, 특히 금기어의 개념이네요. 동영상도 확인해보니 첫날부터 사연판에 적힌 '곰보'는 '얼굴이 심하게 얇았다', '얼굴에 마마 자국이 있다', '다리 불구자'는 '다리가 불편하다' 등으로 방송했더군요.

김동건: 저도 53년 됐어도 "곰보, 마지막, 기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던 선배들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화자찬인 것 같지만, 요즘같이 말이 험악한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나운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나운서가 아니면 저렇게

이산가족찾기 방담

하겠냐고요! 아주 뿌듯해요 감동이에요.
 김상근: 지역에선 아나운서들이 방송 끝나면 전화도 연결해 드려야 하고 할 일이 더 많았어요. 저는 글씨 잘 쓴다고 차트까지 썼다니깐요. 그러니 사람들이 아나운서들에게 고마워하고 아나운서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역 아나운서들은 다 1인3역은 했을 겁니다.
 황인우: 생각해보면 방송의 많은 부분을 경험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눈으로 바라보는 현장과 TV속 현장의 감동의 밀도가 다른 것 등 방송의 실제에 대해 많은 걸 터득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지요.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장을 지켜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특정 화면과 소리를 채집해 연결하는 연출 과정을 거친 TV로 보면 내 체험인 양 더 절절하게 느껴지더군요.
 신은경: 전국의 아나운서, 전직원, 전국민이 호응해주셨기에 기록의 가치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유산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석기: 많은 사람들이 이번처럼 TV가 가깝게 느껴진 적이 없다고 했지요.



7월 6일 이산가족찾기 방송을 진행하는 김동건, 신은경 아나운서



특별생방송 대장정의 첫날(6월 30일) 방송의 황인우, 손석기 아나운서

| 그런데 아나운서들은 모두 강철 체력의 소유자였나요? 보람으로 버틴 건가요?
 황인우: 원종배 선배에게 그 때 얘기를 꺼냈더니 <사랑방중계> 등 내 방송 하기도 바쁘게 이산가족방송까지 하느라 힘들었던 기억밖에 안 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방송 하면서 틈틈이 이산가족방송에 배정되니 아나운서들의 피로도가 상당했죠.
 신은경: 전 사실 힘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도울까 생각했던 마음 그대로였기에 안 쓰러지려고 비타민 먹으며 버텼지요.
 김동건: 신은경 씨와 저는 주로 밤 시간을 맡았는데, 참 힘들었어요. 신은경 씨는 <9시 뉴스>, 전 당시 아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진행했는데 밤샘이 이어지잖아요. 그렇지만 가족을 찾기 위해 종일 기다린 사람들을 생각하면 감수해야지요. 신은경 씨와 당시 스튜디오에서 틈틈이 컵라면 엄청나게 많이 먹었지요.
 김상근: 한 삼사오 일 못 들어가고 계속 대기하며 공개홀 의자에서 졸다가 "스텐 바이!"하면 후다닥 튀어나갔던 것이지요. 사실 힘든 건 수많은 사연을 소개해야 했던 손석기, 황인우 씨였죠.
 황인우: 저도 방송 외 시간엔 줄곧 잠을 잔 것 생각하면 피곤하긴 했나 봐요.
 손석기: 이산가족찾기 방송 이후론 낫술 먹는 게 없어졌으니 덕분에 좋은 습관 들었죠.

| 잊을 수 없는 일, 너무 많지요?

김동건: 자정 넘어 진행했을 때 일이에요. 대전에서 8살, 4살 형제가 가족과 피난 가는데, 내려서 물 마시

다가 기차가 떠나는 바람에 동생이 못 탄 거예요. 아버지가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 되짚어 갔으나 찾지 못 하고 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아들이 부모를 찾아 연락이 되었는데 아버지는 구별을 못하고, 아들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죠. 사실 들어올 때 보니 한눈에 부자지간인 거예요. 다행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알아보지 못 하더라고요. 그러자 누이가 귀땀해 아버지가 귀 뒤 께맨 흉터를 확인한 순간, 전 평생 그런 눈물을 본 적이 없어요. 꿀꺽꿀꺽 쏟아지는데,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는 화장실에서 담배 피며 눈물을 닦곤 했지요. 나도 이산가족이잖아요.

신은경: MC가 감정에 휩쓸리면 진행이 안 되니까 참으려고 노력해야죠. 전 지금도 가슴 아픈 사연을 소개하는 방송을 할 때, '눈 화장 지워지지 안 돼.'하고 맘 단단히 먹고 차분하게 진행하려고 애쓰지요.

김상근: 혈연이란 게 얼마나 대단한가 실감한 적이 있어요. 두 자매가 상봉한 순간 제가 인터뷰 하다가 마이크가 그들 품안에 끼었는데 어찌나 세계 부동케 안았는지 도저히 뺄 수가 없더라고요.

손석기: 제가 소개한 분 중에 부모를 찾던 1949년생 지중철 씨가 있었어요. 골프용품점을 하는 분이었는데, 결국 가족을 만났고, 성이 김 가며 형도 있다는 걸 알았지요. 그 인연으로 오랜 시간 함께했습니다. 나중에, 덕분에 찾았으니 보답하겠다고 제차 열식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트렁크에 골프백과 옷 일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거금이라 "평생 골프 안 칠 거다." 말하고 돌려주었지요. 나중에 저도 골프를 치게 됐는데 그 때는 그 이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어요. 가끔 그 사람 생각이 나요.

김상근: 손석기 아나운서처럼 아나운서들이 자기 가족과 같이 인터뷰해준 것이 고맙고, 지역에서는 뒷정리까지 다 해주니 그 후로도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황인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한 아주머니를 인터뷰하며 "잘 생각해보라고 했더니 "방아인지 방아진인지 들은 것도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산 근처에 이 분 친척이 사시지 않겠는가'하고 방송했는데, 실제로 울산에서 가족을 만났을 때 참 보람이 컸습니다.

| 안타까운 일도 참 많았습니까.

손석기: 이산가족 분들을 인터뷰 하면, "계속 굶고 밤 새고 해서 기운이 없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정도니 참 안쓰러웠어요.

김동건: 삼 형제를 혼자 키운 부인이 남편을 만났는데 재혼 사실을 알고 상봉 자리에서 "너희 아버지다. 인사드려라." 하고는 "이제 애네들 데리고 가시오."하고 매몰차게 말하는데, 참 안됐더라고요. 부부간에 만난 이들을 보면, 남편은 재혼했으나 부인은 수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김상근: 해후는 기쁨이지만 안쓰러운 경우도 많았죠. 무척 예뻐했다는 5살 여동생과 헤어진 오빠들이 전화로 확인한 후 만나러 왔는데, 천연두를 앓아 모습이 바뀐 동생을 본 다음부터는 어떻게든 지 근접시키려 했던 질문을 일부러 아닌 질문으로 하고, 가족이 아니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걸 지켜보기가 참 가슴 아팠습니다.

황인우: 만난 후에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도 있었지요. 외려 연을 끊거나 가족간의 불화로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으니, 지금 같으면 집단 상치의 후유증을 치유하는 프로젝트가 이어졌을 거예요.

김동건: 무엇보다 이산가족들이 다 만난 게 아니니 못 찾은 사람들은 "왜 더 안해 주냐?"는 불만이 나오잖아요.

손석기: 그래서 이산가족찾기방송 1주년을 맞아 토요일마다 <중공에서 찾습니다>를 정규 편성해 저와 황인우 아나운서가 진행했지요.

황인우: 2주년 특집으로 <북에 보내는 편지>도 방송했는데, 남북한 우편 왕래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KBS가 편지를 보내주는 줄 알고 다 봉투 속에 원적을 적은 봉투를 넣으신 거예요. 편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봉투를 보니 간절함이 느껴져 눈

물이 확 쏟아지더군요. 결국 울먹이느라 부끄럽게도 방송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동건: 정말이지 가족은 절대로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인류 보편적인 가치 아니에요? 제 아이들이 땀살 때 없어졌던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일하는 아가씨가 서울 구경 하러 데리고 나간 것인데 그걸 모르고 찾느라 반나절 진땀나게 돌아다니는 적이 있습니다. 부모자식간에는 같이 살아야 해요! 어떻게 가족이 헤어져 사느냐고요? 지금 만나고 헤어지는 이산가족들 어찌하는 거예요? 안 만나니만 못하다, 차라리 잇고 지내는 게 나을지 몰라요. 빨리 통일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은경: 그렇게 격차나 달라진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앞으로 치러야 할 통일 비용이라 생각합니다. 통일되는 그 날을 위해서 무엇이든 대비해야 할 것 같아요.

| 다시 참여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신은경: 당시 한 신문사에서 '새파란 진행자가 무슨 이산의 아픔을 알겠는가' 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칼럼에서 "빨리 나이를 먹자"고 쓴 적이 있어요. 통일 후 더 많은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제는 분단조국의 아픔, 삶의 굴곡 끌어안으며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석기: 곧 올 거예요. 김상근 교수가 뛰어난 PD니까 두 분을 MC로 해 방송 만들면 좋겠네요.

김동건: 직업이 아나운서인 사람이 무슨 방송인들 안 하겠어요? 우리 시대에 그런 방송을 했다는 것 큰 보람이고, 좋은 동료들과 같이 회고할 수 있다는 것도 좋습니다. 다시 하라하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단 신은경과 함께라면!

손석기: 저도 패널리 황인우 씨라면 하겠습니다.

황인우: 전 방송일지를 쓰면서 더 나은 방송을 모색할 것 같아요.

김상근: 남북의 이산가족이 만나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으니 까 저희들의 경험은 유익하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깊이 있게 내용을 보강하고 인터뷰도 하며 충실하게 다룬다면 성과는 더 커지겠지요. 그런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약력



김동건 1963년 DBS 입사, TBC, KBS를 거쳐 1993년 프리랜서 선언 후 올해 30주년을 맞은 KBS 1TV <가요무대>와 조선TV <낭만논객>을 진행 중이다.



김상근 1976년 입사, PD로 전직해 TV2국 주간, 위성방송국장, 나사렛대 방송미디어학과 부교수를 역임했고,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손석기 1976년 DBS 입사, KBS를 거쳐 SBS(1991년~2010년) 퇴직 후 2014년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7기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황인우 1979년 입사, SBS방송아카데미 아나운서·MC과정 교수, 서울여대 언론영상학과 초빙교수를 지냈고 2011년 창간한 클럽회보 편집장을 맡고 있다.



신은경 1981년 입사, 한세대 신문방송학과를 거쳐 2013년 3월 개교한 차의과대학 의료홍보영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CTS TV <7000 미라클> 진행하고 있다.

방송에 참여한 지역 아나운서

- | 부산 | 조계식 김병래 송광자 김미란 전옥수 김운대 왕종근 고광수
- | 대구 | 정정화 이동건 이상학 김영숙
- | 광주 | 이재봉 최경천 윤동원 송경혜
- | 전주 | 이종섭 조성진 손혜원 이정란 박준열
- | 대전 | 박종권 이종태 강희수 안윤옥 김이숙 김진원 조은미
- | 청주 | 오한신 이영숙 이진옥 조영숙
- | 제주 | 김선동 정옥순 김범규 김동훈
- | 춘천 | 김상근 김민주 이정연 주미영 신혜경
- | 강릉 | 양성준 김명희 등



시는 내게 있어 늘 궁극의 가치였다

논골담길 가는 길

그 곳에도 바다가 있다
 바스리지는 햇살에 말라가는 황혼의 봄날 아득하고 아득한 오월의 바다
 실 눈 뜨면 은사시나무처럼 흔들리는 해 비늘이 날개를 달았다
 바다와 수평선은 가파른 골목길에서도 등이 서로 맞닿아
 따뜻했던 기억들로 빛바래지 않는다
 늘상 파도를 베고 누워 부드러운 깃들 같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길
 오랜 세월 기쁨도 슬픔도 길 위에 섞어 집어등 환히 밝히는 오징어배와
 거친 바다로 아낌없이 몸을 던지는 사람들
 이 언덕에서 떠나보낸 술한 고깃배들과
 이 언덕에서 가쁜 숨 고르며 그물뜨기 하던 아낙들과
 이 언덕에서 긴긴 세월 조출한 모습으로 바닷바람 맞고 선 나무들처럼
 등댓불 밝히는 고독한 남자
 물색 짙은 저녁노을에 등 떠밀려 내게 겸손하게 말을 건네는 항구는
 어머니의 품처럼 익숙하고 익숙하다
 나도 아침마다 저 바다에 물이 들어 창창 붉고 뜨거운 해로 떠올라
 창망한 바다 굽어보며 헛헛한 마음 치유 받고 싶다
 온통 자연이 주는 조각품들을 가슴에 품고 사는 논골담길 사람들

재촉하지 마라 그 길

최인희 문학상을 받고 나서

1990년 2월 첫 부임지가 동해 오픈 스튜디오였습니다. 개발이 진행 중인 도시에 유일하게 우뚝 솟아있던 보험 회사 건물 7층에서 엔지니어 한 분과 나이 드신 시청료 징수요원들과 한 사무실을 쓰면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혼자 제작·방송해야 했습니다. 일정표를 가득가득 메워가는 바쁜 일과였지만 늘 외로움에 쫓겨 다녔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그 곳에서 눈길은 자꾸만 근처 해안도로 동해 바다를 향해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중앙 문예지에 신인상을 받으며 1992년에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시집 「먹감나무 하느님」 「물의 화법」 등을 내면서 아름다운 우리말 찾기와 바른 언어 사용에 공지를 가지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제18회 최인희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1926년 삼척 태생으로 33세로 요절하기까지 강원 문학의 자양분이 되어준 최인희崔寅熙 시인을 기리는 상이라 어깨가 무겁습니다. 수상작은 '논골담길 가는 길'. 24년 전 몸도, 마음도, 생각도 무척이나 어렸기에 지독히도 외로웠던 첫 근무지가 제 기억 속에 생채기처럼 남아있었나 봅니다. 어느 날엔가 다시 찾아가 보았던 동해시 묵호동 등대마을. 세월이 흐르고 나니 사람들은 이곳을 논골담길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김경미(KBS 강릉)



방 | 송 | 가 | 소 | 식

지상파 3사 아나운서 제27회 한국어문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이수민(KBS) 한국어문기자협회장상 이주연(MBC) 박상도(SBS)

지상파 3사 아나운서가 제27회 한국어문상을 수상했다. 12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어문기자협회(회장 이경우) 주최 제27회 한국어문상 시상식에서 대상은 김하수 전 연세대 교수가 받았고, 이수민 KBS 아나운서실 한국어연

구부장이 이은희 중앙일보 어문연구소 차장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주연 MBC 아나운서국 방송언어연구팀장과 박상도 SBS 아나운서팀 차장은 한국어문기자협회장상을 받았다.



이수민



이주연



박상도



43기 남녀 아나운서 선발

41기 서울 발령으로 42기 아나운서 지역 순환 근무



강성규

김중현

이혜성

KBS 43기 신입 아나운서(남2, 여1)가 선발되었다.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강성규, 김중현, 이혜성 아나운서의 정식 임용일은 2016년 1월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42기 이재성, 박소현 아나운서는 각각 창원과 춘천으로, 1년 6개월간 지역근무를 해오던 41기 김선근, 강서은 아나운서는 서울로 전입했다.

이정민, 콘텐츠 제안 공모 최우수상 수상

크로스미디어 멀티플랫폼 부문 <어디까지 해봤니>



이정민 아나운서가 우수한 기획력을 인정받았다. KBS TV콘텐츠 제안 공모, 크로스미디어 멀티플랫폼 프로그램 아이디어 부문에서 이정민 아나운서가 제안한 <어디까지 해봤니>가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가을철 부분 개편 실시

김소영 류수민 차예린 등 3명 새 진행자로 발탁

11월 가을 개편을 맞아 MBC 아나운서들의 프로그램이 일부 조정되었다. TV 평일 <뉴스투데이>는 김소영 아나운서, <24시 마감뉴스>는 류수민 아나운서, <스포츠 다이어리>는 차예린 아나운서가 새 진행자로 나섰다. 또한 라디오도 <서인의 새벽다방> 서인 아나운서, <잠 못드는 이유, 강다솜입니다> 강다솜 아나운서, <비포 선 라이즈>는 허일 후 아나운서로 부분 조정되었다.

난지공원에서 아나운서국 체육대회 개최

10월 21일, 상암동 난지천공원에서 아나운서국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가 열렸다. 김현중 편성본부장의 격려사로 시작된 체육대회에서 국원들은 다양한 경기를 함께한 후 잔디공원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친목을 다졌다.

박연경, 창사54주년 기념식서 우수상 수상

<스포츠뉴스> <리얼스토리 눈> 등에서 안정적 진행



박연경 아나운서가 12월 1일 창사 54주년 기념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박 아나운서는 <스포츠뉴스>, <주말 뉴스투데이>, <리얼스토리 눈> 등에서 신선한 이미지와 차분하고 안정적인 진행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창사 25주년 맞아 조직 개편

총괄대표이사 사장 김진원 제작대표이사 부사장 박정훈



김진원

박정훈

창사 25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제작 본부를 예능본부와 시사교양본부로 나누고 '제작부문 대표 이사 부사장' 체제를 만들었다. 총괄대표

이사 사장에는 김진원 SBS미디어홀딩스 사장이, 제작대표 이사 부사장에는 박정훈 제작본부장이 임명되었다.

라디오 가을 개편, 팟캐스트 도입

인기 프로그램 편집 방송하는 <고릴라 캐스트> 신설

11월 2일 라디오 가을 개편을 실시, 인터넷망을 통해 자유로운 토크와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팟캐스트(pod cast)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고릴라 캐스트(매일 새벽 4시 ~ 6시)>를 신설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편집 방송한다. 배성재 아나운서가 DJ로 참여하는 <배성재의 주말 유나이티드(토, 일 밤 10시 ~ 11시)>, 조정식 아나운서 진행으로 다양한 필진이 각각의 코너를 담당하는 매거진 형식 <FMzine(매일 새벽 1 ~ 3시)>을 신설했다.

그리고 <8시 뉴스> 앵커를 맡았던 박선영 아나운서가 1년간의 미국 뉴욕 연수를 마치고 복귀해 <박선영의 씨네타운(월~토 오전 11시 ~ 12시)>을 맡았다.



방송시간 확대 등 부분 조정



11월 30일부터 일부 프로그램 부분 조정이 있었다. 평일에 최저해 아나운서(사진)가 진행하는 <행복 부동산 연구소>는 15분 확대, 오후 2시 55분부터 3시 40분까지 방송되며, 조은유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TV주치의(월-목)> 역시 15분 확대되고 오후에서 오전으로 이동, 8시 10분부터 8시 40분까지 방송된다. 평일 유영선, 신미정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독특한 연예뉴스>는 10분 확대, 밤 9시부터 9시 45분까지 방송되며, 김준호, 유진영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뉴스라인 인천-경기>는 10분 축소돼 밤 10시 40분부터 11시 5분까지 방송된다.

TV 가을 개편으로 큰 변화

<CBS 아카데미, 숲> <꽃다방> 신설

CBS TV 가을 개편으로 프로그램이 바뀌었다. 지성과 영성의 조화라는 목표 아래 <CBS 아카데미, 숲(월~목 오전 11시)>을 신설, 정민아, 송정훈, 김윤주 아나운서가 요일별로 진행 한다. 또 최초의 예능 프로그램인 꽃다운 권사들의 즐거운 수다쇼 <꽃다방(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전 KBS 아나운서 김현옥 씨와 개그우먼 이성미 등이 출연해 입담을 과시한다.

김윤주 새해 1월 1일 복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로 근무하며 표준FM <주말엔 김윤주와(토, 일 18:15~20:00)>를 진행하는 김윤주 아나운서가 2016년 1월 1일자로 복직한다. 우선 1월과 2월 두 달간 음악FM <꿈과 음악 사이에>를 맡을 예정이다.

<올댓재즈> 25주년 기념

10주간 '재즈가 들린다' 특집방송

CBS 음악FM <유지수의 올댓재즈(93.9mhz, 새벽 2시~4시)>가 음악FM 창립 25주년을 맞아 10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주간 <재즈가 들린다>라는 특집방송을 마련했다. 매주 서울 관악구 남태령에 있는 재즈전문스튜디오 '각'에서 재즈평론가 황덕호 씨와 색소포니스트 이정식이 이끄는 이정식밴드와 함께 재즈에 대한 강의와 연주로 펼쳐지는데 팟빵이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다.



10시간 정시 합격 상담 특집

tbsTV는 개국 이후 최초로 수험생들의 교육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10시간 연속생방송' 특별기획 <2016 정시합격 대예측>을 방송한다. 교육비 절감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국내 최고의 강사진과 초빙해 대학 입시 정보를 제공해온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를 확대 편성해 12월 18일 오후 1시부터 밤 11시까지 정연주, 김보빈, 김혜지 아나운서 진행으로 100여 명의 수험생에게 진학사의 예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 기부 프로그램이다.



원서호 방송 복귀

미디어정책실 6개월 파견근무 후 복귀해 개편에 맞춰 <노래하는FM 2부> DJ와 TV <수도권 정보특급>MC로 활약하고 있다.



'다시 복음 앞에' 주제로 가을 개편

10월 26일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가을개편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일요일 정오 <그레이스 사운드>, 일요일 오후 1시 <행복한 주일입니다> 등이 신설되었다.

여수에 전남동부극동방송 개국



11월 28일 전남 여수에 12번째 네트워크인 전남동부극동방송(FM97.5MHz/HLEI)이 개국했다. 7월부터 본격적인 설립준비에 들어가 여수, 순천, 광양, 고흥, 하동, 남해 등 전남동부지역 가청권 내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11월 27일 미국 콜로라도 남성 4중창단과 극동방송어린이합창단의 개국축하음악회에 이어 개국일 조찬간사 예배와 송출식에는 김장환 이사장과 이종보 지사장을 비롯해 정·재계 및 개신교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바티칸·명동 성탄 미사

평화방송 TV와 라디오로 생중계



평화방송이 기쁜 성탄을 맞아 바티칸과 명동에서 거행되는 미사를 중계 방송한다. 12월 24일 자정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거행되는 '성탄자정미사'는 평화방송 라디오를 통해 김현주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생중계된다.

12월 25일 성탄대축일 오전 5시 55분에 바티칸에서 봉헌되는 '바티칸 성탄 자정미사'는 김부궁 아나운서가 진행하며 평화방송 TV를 통해 방송된다. 같은 날 정오에 명동대성당에서 바치는 예수성탄 대축일 미사도 평화방송 라디오를 통해 김부궁 아나운서의 중계로 방송될 예정이다.

제15회 창작 생활 성가제

한국뿌에리칸뜨레스 연합 합창제도 개최

11월 24일 라디오를 통해 생중계된 '제15회 PBC 창작생활성가제'가 이정민, 김지현(사진 왼쪽부터) 아나운서 공동 진행으로 서울 서강대 메리홀에서 열렸다. 또 11월 20일 서울대교구 반포4동 성당에서는 김지현 아나운서 진행으로 1994년 창단한 6개 합창단 150여 어린이가 함께하는 PBC 한국 뿌에리칸뜨레스 합창연합 제7회 합창제가 열렸다.



김슬애 휴직으로 프로그램 조정

12월 7일 출산 휴가로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매일 오후 5시~7시)>은 이정민, <사도 바오로의 사목서간(월~금, 6시 5분~6시 50분)>은 김부궁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제9대 선상신 사장 취임

공채 출신 1호 사장, 제2의 개국 선언



10월 8일, 서울 마포동 다보빌딩 3층 법당 다보원에서 최은경 아나운서부장의 사회로 불교방송 제9대 선상신 사장의 취임식(사진)이 있었다. 1989년 불교방송 공채 1기로 입사해 보도국장을 지냈고 한국언론재단 경영본부장 등을 거쳐 불교방송 공채 출신 1호 사장이다.

창사 25주년을 맞아 제2의 개국을 선언한 불교방송은 본사와 지방사 전 직원과 신규 채용한 방송직 12명(아나운서 지원 4명) 등 23명의 인턴사원, 그리고 불교방송 후원회 자원봉사 봉사들과 함께 경북 영천 은해사에서 11월 21일과 22일 1박 2일 템플스테이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규향(전 KBS)의 발음 이야기 10

바른말살천운동시민협의회 제공

“어머니, ‘개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집에 걸려온 전화에 대한 대답이다.

영어에서는 ‘케네디’, ‘멕시코’, ‘MBC[엠비시]’를 ‘캐네디’, ‘멕시코’, ‘엠비시’로 읽어도 다른 뜻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어는 “세 집[세: 집(세 채의 집), 새 집[새:집], (새가 사는 집), 새 집[새집](새로 지은 집)]”에서처럼 다른 뜻이 된다.

‘개/개’의 발음을 숙달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ㄹ(Closed)/닫힌 상태, ㄹ(Half closed)/반쯤 닫힌 상태, ㄹ(Half open)/반쯤 열린 상태, ㄹ(Open)/열린 상태’ ‘ㄹ/개/개/가’를 발음할 때 입을 벌린 정도의 개구도開口度이다.

가령 ‘게蟹/게契/개(犬)’의 발음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첫소리인 ‘ㄱ’을 ‘ㄹ/개/

ㄹ/가’에 붙여 ‘기/계/개/가’를 연습해보면 입모양이 조금씩 벌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개/개’에 의해 분화되는 어휘의 예를 들어본다. 계:시啓示/개시開始, 계:성啓星/개:성個性/개성開城, 계:발啓發/개발開發, 초성 ‘ㄱ’ 계의 한자는 ‘계절季節, 계속繼續’처럼 모음이 ‘개’로 표기된다. 단 “계시판[계:시판]揭示板, 휴계실[休憩室/계송[계:송]偈頌(부처님을 찬미하는 노래)의 표기만이 예외이다.

네:땀(너의 땀)/내:땀(나의 땀), 네(대답)/내:(작은 물줄기), 네;시(4시)/내:시(內侍), 메(새:~)/매(좋은~), 메:다(어깨에 ~)/매:다(김:을~), 메달(금~)/매:달(每月), 메일(Mail)/매:일(날마다), 메주

어머니 ‘개모임’에 나가셨습니다

발음교육이 없는 나라에서 ㄹ[e]/ㄹ[æ]에 의한 의미의 변별력



(~를 담그다)/매:주(주일마다), 모:레(내일 다음날)/모래(~밭), 베:다(풀을 ~)/베:다(새끼를 ~), 세:다(돈:을 ~)/새:다(날/물이 ~), 식해食醃(~한 사발)/식해食醃(가자미 ~), 제:기祭器, 제:기(~차기)/재:기再起, 재기才氣(~발랄), 제:수弟嫂, 제:수祭需/재:수再修, 재수(~가 좋다), 제:일第一/재:일在日, 제:주濟州/재주(~부리다), 제:(~로 가루를 치다), (아:는 ~)/채(골프~), 무:~집 한~, 신을 신은~, ~익지 않았다, 테(안경~)/태:態(맴시), 헤치다(수풀을 ~)/해:치다(건강을 ~).

이처럼 국어에서 ㄹ[e]/ㄹ[æ]에 의해 변별력을 주는 어휘는 비교적 적은 편으로 이 분야는 완벽하게 익힐 수 있다. 정치인 ‘문

재인’을 ‘문제인’으로 무심경하게 읽는 아나운서는 문제問題가 있는 문제인問題人 아나운서이다.

한국은 국어교육에서 발음교육이 없는 나라이다. 이러한 국어발음의 경시 풍조는 외국인들의 한국어 교육에서도 당연시되고 있다.

어느 나라 국어든 간에 초급·중급·고급의 국어회화가 있기 마련이다. 한국어는 이미 방송 현장과 일상회화에서 고급 국어회화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 국어학계에는 상아탑象牙塔만 지키는 국어학자가 대세이며 실용 국어학자는 손에 꼽을 정도라는 현실을 감안하고라도 말이다.



회 | 원 | 동 | 정

MBC 초록회 '자랑스런후배상' 보도국 박선영 기자 수상



MBC OB초록회(전 MBC 여자 아나운서와 PD 모임) 임국희 회장은 12월 3일 정오 상암동 한정식 집 덕승제에서 해마다 연말에 시행

하는 '자랑스런후배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의 수상자는 5시 <이브닝뉴스>를 진행하는 22년 차 보도국 여성 '취재' 기자의 맏언니 박선영 기자로, 9.11테러 동시통역방송에 투입되는가 하면 스쿠버 다이빙을 하며 바다 속 현장 취재도 하고 매일 5km를 함께 달리며 울트라 마라토너를 취재하는 등 열정과 능력의 소유자이다.

장명호 전 MBC 감사, 최창섭 전 MBC 아나운서국장, 현 뉴스데스크 배현진 앵커, 김완태 아나운서 부장을 비롯한 20여 초록회원이 박선영 기자의 수상을 축하한 시상식에서 전 제주MBC 차인태 사장은 '작은 상패지만 의미는 크다'고 격려했다.

초록회의 '자랑스런후배상'은 1995년 제1회 수상자 조일수 아나운서를 시작으로 김은주, 유혜자, 김수정, 박영선 국회의원, 이진숙 대전MBC사장, 배현진, 이정민 아나운서 등 22명이 받았다.

제2회 미주가톨릭문학상 수상



위진록(전 KBS)

11월 18일(현지 시간) 미주가톨릭문학인 협회가 주관하는 제2회 미주가톨릭문학상을 수상했다. 수상작 <고향이 어디십니까>

는 올해 87세인 위 회원의 해외생활 60여 년의 희로애락과 문학적 갈망이 담겨있는 자전적 수필이다. LA 용수산 연회실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정영호(전 KBS), 이승상(전 MBC), 송현식(전 KBS) 회원 등이 참석해 축하해주었다.

월드뉴스에 칼럼 사자성어 등 기고



이팔웅(전 KBS)

'월드뉴스(www.worldnews.or.kr)' 논설실장으로 위촉되어 시사칼럼을 비롯해 바른말 고운 말, 상식 사자성어 등을 기고하고 있다. 월드뉴스는 박교서(전 KBS) 회원이 2008년 6월 창간한 인터넷신문이다.

LA와 서울서 임공수가곡발표회 진행



김미희

LA 김미희(전 KBS) 서울 채영신(전 KBS)

'강 건너 봄이 오듯'의 작곡가 임공수 가곡발표회가 LA와 서울에서 김미희, 채영신 회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세계한인교육자협의회와 BKCA 주최, 춘하추동방송 등이 후원한 광복 70주년 기념 작곡가 임공수 초청 제1회 한국가곡의 밤 행사가 LA 라디오 서울 진행자인 김미희(전 KBS) 회원의 사회로 10월 4일 오후 7시 LA 월서감리교회에서 열렸다.

또한 12월 5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별관 컬쳐파크 4층 토폴스홀에서 열린 임공수 가곡발표회는 채영신 회원이 진행했다.



채영신

SBS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출연



김규홍(전 KBS) 부회장

11월 20일 SBS 러브FM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에 출연해 37년간의 방송생활과 퇴직 후 10년의 추억담을 나누었다. 김 부회장은 용인시 지역노인회에서 리시아워 교통자원봉사, 한국JC특우회 등 각종 단체에서 활동하며 남다른 청춘 열기로 생활하고 있다.

남대문교회 첫 여성 장로로 임직돼



차기정(전 CBS)

11월 15일, 130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시 중구 남대문교회 첫 여성 장로로 임직되었다. 이날 장립식 축하 행사에는 경희대 대학방송국 동문인 황량, CBS 동료였던 변순복, 변춘애, 배유선, 정인숙 회원 등이 참석했다.

노인의 날 보건복지부 효행상 받아



이혜옥(전 KBS)

10월 2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9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효행상을 수상했다. 요양사 자격증을 따 노부모를 봉양해온 이 회원은 효지도사로서 청소년을 위한 효교육에도 나서고 있다.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서 주제 발표



김성호(전 KBS)

한국방송학회 부회장으로서 11월 7일 단국대학교에서 열린 정기학술대회 시니어 세션에서 체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방송사 연구를 위한 다섯 가지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백석대학교에서 '세상과의 유쾌한 소통' 강연



김상근(전 KBS)

11월 5일 충남 천안시 백석대학교에서 주최하는 백석 다빈치아카데미 '명사초청 인문학 강좌'에서 '세상과의 유쾌한 소통'을 주제로 강연했다. 한편 김 회원은 유명 개그맨 김준현의 부친이다.

원로 홍양보 아나운서 미국서 별세



9월 29일 향년 100세로 미국 메릴랜드에서 별세했다.

1916년 5월 22일 평양에서 출생, 1945년 평양방송 아나운서로 입문한 고인은 1946년 아나운서 출신 이혜구 중앙방송국장, 이계원, 민재호, 윤길구, 이덕근 등 선배들의 심사를 거쳐 KBS에 특채되었다. 특유의 학구열과 부지런한 성품으로 학업을 병행해 서울대 사범대 국문과를 졸업했고, 1949년 김구 선생 장례식 을지로 장송 행진 중계를 비롯해 전천후 중계 캐스터, <스무고개> MC 등으로 활약했다. 1951년 VUNC(유엔군총사령부방송)를 거쳐 1968년 미국 이민 후 미국의 소리(VOA) 아나운서로서 1991년까지 46년간 현역으로 일하며 60년 가까이 마이크를 지켜온 정통파 아나운서였다.

경기도 화성시문화상 수상



어호선(전 KBS)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이사과 복합문화센터 운영위원으로 10월 4일 화성시문화상 문예진흥부문상을 수상했다. 1980년 <한국수필>을 통해 등단한 어 회원은 대한노인회중앙회 이사로 2011년 노인복지부문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3차원 목소리 만들기> 번역서 출간



이정애(전 TBC)

아나레슨에서 15년간 아나운서 지망생들을 지도하며 참고 서적으로 활용하던 자니 윌슨의 <3차원 목소리 만들기(보이스코칭)>를 번역·출간했다. 재미있고도 간단한 음성 훈련법을 다룬 실제적인 지침서이다.

38년 직장생활 마치고 고국 나들이



정철웅(전 KBS)

뉴욕한인방송에서 10년, 뉴욕금용가의 대표적인 선물거래소 New York Merchant Tile Exchange에서 28년간 활약하고 8월에 은퇴하며 고국을 방문해 아나운서 동료들을 만나고 10월 11일 돌아갔다. 1969년 입사, 1977년 이민 간 정 회원은 10년간 뉴욕의 코리아 퍼레이드와 미스코리아 선발 뉴욕 예선대회의 사회를 진행했다.

| 알림 |

고맙습니다

12월 10일까지 입금



클럽 발전 기금 내 주신분



황우겸(전 KBS) 100만 원



김채영(전 MBC) 100만 원



정철웅(전 KBS) 100달러

황우겸 고문이 주소록 발간 비용을 기부함에 따라 2006년도에 이어 내년 6월 발간을 목표로 회원수첩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정보 수집 시 회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 강한빛(febc) 11월 14일 Newspim 증권부 기자와 혼인
- 장찬희(febc) 11월 14일 무역업에 종사하던 연인과 혼인
- 김선근(KBS) 11월 14일 득녀
- 남궁미(전 MBC) 11월 8일 아들 안성업 군 혼사
- 최윤락(전 KBS) 10월 31일 딸 유빈 양 혼사
- 구은영(MBC) 10월 24일 사업가와 혼인
- 이승현(febc) 10월 17일 오르간반주자와 혼인
- 김한별(KBS광주) 10월 9일 혼인

조의를 표합니다

- 박민정(전 MBC) 11월 13일 모친상
- 윤동원(전 KBS) 10월 21일 모친상

수고하셨습니다

- 김주희(전 SBS) 10월 8일 SBS 퇴사
- 한석준(전 KBS) 11월 19일 KBS 퇴사

2015 대한민국 아나운서대상 시상식



올해 처음 신설한 앵커상의 김은성 김평래



라디오진행상 수상자 이경 그리고 강영숙 고문으로부터 상을 받고 함박웃음을 터뜨린 이재은



TV진행상(교양) 유영선 김지연



TV진행상(예능) 조우중 장예원



스포츠캐스터상 이재후



공로상 노병무



장기범상을 제정한 이계진 부회장에서서 상패를 받는 tbs 김병훈 부장, MBC 김상호



아나운서 선후배가 함께하니 더 즐거웠어요



클럽 임국희 회장으로부터 격려금을 받는 윤지영 회장



아나운서합창단의 흥겨운 크리스마스 캐롤



여기서 만나 뵈니 더 기쁘네요

신동진(MBC) 전임 회장 공로패와 이진민 치과 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아나운서합창단을 지도한 김희연 지휘자 등에 대한 감사패 수여로 막이 오른 시상식에서 노병무 아나운서는 황우겸 고문으로부터 공로상을 받고 "1983년 입사, 곧 정년퇴직이다. 앞으로 재능기부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라디오진행상은 수상자의 아내를 무대에 오르게 한 후 강영숙(전 MBC) 고문이 시상했다. <사랑의 뜰안>을 제작진행하는 이경 아나운서는 "말에는 사계절이 담겨있다. 따뜻한 봄 같은 말을 전하겠다."라고 했고, 라디오 <세상을 여는 아침>의 이재은 아나운서는 "수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올해 처음 신설한 앵커상의 수상자, <KBS 뉴스 12>의 김은성 아나운서는 임국희 회장으로부터 상을 받고 "뉴스만 18년,

세월호 사태 50시간 속보도 해봤다. 아나운서는 인기보다 신뢰를 주는 직업,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했고, 김평래 아나운서는 <9시뉴스 부산>를 진행하느라 불참했다.

<OBS 뉴스 940>, <독특한 연예뉴스>, <재테크 119 보험의 기술>의 유영선 아나운서는 차인태(전 MBC) 부회장에서부터 TV 진행상 교양부문 상을 받고, "슬럼프를 겪던 중에 상을 받으니 용기가 난다."라고 말했고, <SBS컬처클럽>, <좋은 아침>의 김지연 아나운서는 "아이 엄마에게 교양 프로그램 맡겨줘 고맙다. 말 한마디, 손짓 하나 쉽지 않지만 선후배, 동기가 있어 든든하다."라고 말했다.

예능 부문 수상자, <1:100>, <나를 돌아봐>의 조우중 아나운서가 "연예인들과 대결하는 게 쉽지 않다. 우리를 지켜 달라."

라고 소감을 밝히자 사회자 윤인구 아나운서는 "상이 무겁다. 판 생각 말고 발붙이고 있란 의미이다."라고 받아쳐 웃음을 주었다. <한밤의 TV연예>, <접속 무비월드>, <TV동물농장>의 장혜원 아나운서는 "팔처럼 예뻐해 주시는 선배님들 덕분이다. 더 열심히 소처럼 일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규홍(전 KBS) 부회장에서부터 스포츠캐스터상을 받은 축구 전문 이재후 아나운서는 "특히 김승한 선배님께 감사하다. 앞으로는 중계 말미에 이름을 덜 용기가 생길 것 같다."라고 말했고, 사회자의 요청에 쑥스러워하며 '긴장을 놓지 못하게 하는 슛, 골!'을 외쳤다.

이계진(전 SBS) 부회장이 고故 장기범 아나운서의 정신을 기려 제정한 장기범상은 <우리말 고운 말>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는 tbs 아나운서부에 돌아갔다. 대표

로 무대에 오른 김병훈 부장은 "달과 술을 사랑하셨던 낭만인' 장기범 선배님을 생각하며 동료들과 함께 취해보려나."라고 말했다. DMB 주조 MD로 근무 중인 김상호 아나운서는 "요즘 우리들은 방송 외적인 일을 주문받고 있다. 어둑어둑한 곳에서 근무하는데 귀중한 상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고맙다."라고 말했다.

KBS 한글날 특집 프로그램에서 아나운서합창단을 위해 '노래처럼'을 작사·작곡해 특별상을 수상한 부활의 김태원은 "정의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모임에 함께해 무한히 영광스럽다."고 말했고,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베스트드레서상 시상에서는 빨간 재킷을 입은 김은희(전 KBS) 회원과, 신동진, 강서는 아나운서에게 각각 500만 원 상당의 이순화한복 제작권을 선사하며 훈훈하게 막을 내렸다.

2015 한국아나운서대상 화제의 수상자 인터뷰

대상 최영아(SBS)

20년간 매일 시청자에게 인사를 건넨 상이라 생각



귀여운 미소와 겸손한 태도에 발달하고 편안한 진행이 돋보이는 'SBS 안방마님' 최영아 아나운서는 부상으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의 '수트라하버 리조트' 숙박권을 받고 기뻐하며, "사실 이십대에는 방송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삼십대에는 딸 키우며 방송하느라 허덕였고, 사십이 넘어 서야 마이크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알게 되었다. 매일 시청자에게 인사를 건넨 이십년이란 시간에 대한 상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1973년생으로 목포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공채 5기로 입사, <생방송 모닝 와이드>, <주말 8 뉴스>, <잘 먹고 잘사는 법>, <특명 아빠의 도전> 등 많은 방송을 진행하며 2005년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10년째 <생방송 투데이>를 진행 중이며 라디오 <최영아의 책하고 놀자> MC를 맡고 있는 다독가多讀家로서 끊임없이 자신의 방송을 분석하고 매번 일지를 기록할 정도로 자기계발에 멈춤이 없어 후배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아나운서클럽상 정민아(CBS)

나의 길이 맞다고 확인시켜 준 선배들의 상이지요



"내 길이 맞나?" 고민했는데, '그만 의심하라'고 선배님들께서 주시는 상이라 생각한다. 입사 10년 되는 해에 2015CBS 좋은 프로그램 상과 클럽상까지 받게 되니 정말 뜻 깊고 감사하다." 음악FM <어메이징 그레이스(오전 6:00 ~ 7:00)>를 1인 제작·진행하며 맡은 지 3, 4년 만에 동시간대 청취율 1위로 끌어올린 실력자로 <CBS음악회>, <CBS 아카데미 숲 '성서 속 미술관'> 등 예술 관련 TV 프로그램도 맡고 있다. 서강대에서 신문방송학과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고 방송국 생활을 하며 아나운서를 꿈꾸게 되었지만, 시험 첫 해에 다 낙방하고 미래에셋증권 대체투자본부에서 1년 근무하다 2005년 12월에 입사했다.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하며 지칠 줄 모르는 선배, 후배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 주는 선배, 프로그램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도 따를 자가 없는 선배 등 선배는 선배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도 반드시 배울 점이 있다는 점 아나운서는 이른 아침 가요 프로그램도 진행해보고 싶다고 한다.

아나운서클럽상 도경완(KBS)

나의 마음을 움직인 아나운서를 보고 아나운서를 꿈꿨다



"입사 전의 시간들이 유독 어둡고 길게만 느껴졌기에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따뜻함이 있는 아나운서실에서 안정감과 행복 속에 감사하며 지내고 있다. 우리 조직과 구성원이 어떻게 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며, 제게서 시작된 소통과 공감의 힘이 멀리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고 연구하며 실천하겠다." 무척내고 좋을 일을 하고 싶었는데, 눈물 한 방울로 자신의 마음을 움직여 조금이나마 불우이웃을 도와야겠다고 마음먹게 한 아나운서를 보고, 아나운서를 꿈꾸게 되었다는 도경완 아나운서. 1982년생으로 홍익대 전자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2009년 2월 공채 35기로 입사했다. 5년간 진행한 <생생정보>, 3년간 진행한 <토요일 가족이 부른다>를 비롯해 <나 출근합니다>, <TV유치원>, <아나운서와 우리가 함께 하는 라디오> 등을 맡고 있다. 2013년 6월 가수 장윤정과 혼인해 아들 하나를 둔 도 아나운서의 취미는 가족을 위한 레시피 연구라고 한다.

YOUNGONE

41년 연속 흑자 신화보다
매년 이어가는 나눔이 더 빛나는 기업

7만 1천명의 영원인들이
국경을 넘어 가족처럼 일하는 기업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세계 최고의 브랜드가 먼저 찾는 기업

現 국제산악연맹 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랭킹 1위
노스페이스 클라이밍팀 박희용

이것이 세계와 호흡하는 영원무역입니다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어온 글로벌 기술력,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경영,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글로벌 나눔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무역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원하고, 영원이 만듭니다

(주)영원무역
www.youngone.com